



헌자들

2021년 12월 26일 설교
마태복음 2장 1-12절입니다
설교자: Matt Kasowski

소개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12절입니다.
어떤 클레멘트가 우리를 위해 읽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공부하기 시작할 때 우리를 위해 기도합니다.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목상이 나의 하나님이지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심을 기뻐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당신 백성의 영혼을 먹여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변화되게 하소서.
당신의 거룩한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아멘.

오늘 우리는 세 가지 질문을 던지며 이 이야기에 빠져들 것입니다.
메모를 하는 분들에게 유용할 것입니다.
그들은 또한 마지막에 **Big Idea** 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여기 그들이 있습니다:

- 질문 1:** 헤롯은 예수님에게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 질문 2:** 박사들은 예수에게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 질문 3:** 동방박사들은 무엇을 하였습니까?

우리가 본문에 대해 이러한 질문을 할 때 우리는 또한 우리 자신에 대해 이러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은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 필요합니다.
우리는 흥미로운 이야기만 공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흥미롭습니다!
우리는 실화만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연구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방식을 바꿀 이야기.

이제 첫 번째 질문을 살펴보겠습니다.

헤롯은 예수님에게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헤롯은 하나님이 없는 삶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는 본보기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그의 사진이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왼쪽에 있는 조각상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100%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예수님의 탄생을 다룬 영화에서 헤롯이 어떻게 묘사되었는지입니다.

사실 관청은 영화입니다.

영화 속 배우의 얼굴은 삶에 대한 헤롯의 태도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두 가지로 유명했습니다.

1. 첫째, 헤롯은 거대한 건물을 짓는 데 평생을 바쳤습니다.

그는 성전을 재건했는데, 그 성전은 거대했습니다.

그는 주요 도시의 항구를 재건했습니다.

그는 많은 요새를 건설했습니다.

2. 둘째, 헤롯은 매우 폭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두 번째 아내와 세 아들을 처형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마태복음 2장 16-18절을 읽으면 예수님과 그의 가족이 이집트로 탈출한 후 헤롯이 베들레헴에서 두 살 미만의 소년을 모두 죽였다는 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 끔찍한 일은 우리 이야기 뒤에 옵니다.

마태복음 2장 3절에 나오는 박사들에 대한 헤롯의 첫 번째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헤롯 왕이 이 말을 듣고 근심하더라.”

우리는 문제를 보고 해결 방법을 모를 때 모두 당황합니다.

헤롯은 예수님을 문제로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문제인 이유는 예수님이 헤롯의 권세에 위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헤롯의 안락한 삶에 위협이 되었습니다.

헤롯은 왕이었고 그는 왕으로 남아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내와 세 아들을 죽였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백성들조차 헤롯 외에 다른 사람이 왕이 되는 것에 대해 걱정할 정도로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주목하십시오.

백성들은 항상 헤롯을 두려워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헤롯은 이 동방박사들에 대해 무엇인가를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그들을 놀라게 할 수 없습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실지 알고 나서 박사들이 박사들에게 한 말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2장 8절 말씀입니다.

”가서 그 아이를 부지런히 찾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우리는 헤롯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헤롯이 자기 아들들에게 한 것처럼 예수님을 찾아 죽이려고 박사들에게 착한 척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헤롯은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2장 12절에서 동방박사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는 경고를 받습니다.

헤롯을 보고 그 안에서 우리 자신을 보지 않는 것은 쉽습니다.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아이들을 죽이는 것은 정말, 정말 나쁜 짓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때때로 예수님을 우리의 편안한 삶의 방식에 대한 위협으로 여깁니까?

우리 삶에 예수님보다 더 사랑할 만한 것이 있습니까?

알다시피,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은 좋은 소식입니다.

이 두 구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10:39b 는 말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여기서 예수님은 영생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그분께 당신의 생명을 드린다면 당신은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과 함께 기쁨과 평화를 찾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궁극적인 권위입니다.

사실, 예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동일한 권위를 주장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의 이 두 번째 구절을 보십시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게 합당하지 않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게 합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아직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습니까. 이 진리는 여러분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각할 때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분을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진정한 평화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이든 요구할 수 있는 권세를 갖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구절은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헤롯 왕처럼 될 수 있는지 생각해 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헤롯은 자신의 능력을 무엇보다 사랑했습니다.

이제 당신이 인생에서 가장 사랑하는 것들을 생각해보십시오.
예수님이 당신에게 물으신다면 당신은 그런 것들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정직해.
여러분도 저와 같다면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양보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직면한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각자에게 그분이 무엇을 구하시든 포기할 것을 요구하실 것입니다.
이기심은 그분의 왕국에 설 자리가 없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것을 잃어버릴까 생각하고 그것을 하기가 두려울 때, 당신의 마음을 예수님께 드리는
힘든 일에 전진하는 것입니다.
이기심은 우리 마음에 뿌리 깊은 문제입니다.
그것을 꺼내려면 하나님이 거기에 들어가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믿음을 요구할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지혜로운 사람들이 여러 면에서 보여주는 믿음.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박사들은 예수님에게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역사에는 헤롯에 대한 많은 정보가 있지만 우리는 이 사람들에 대해 많이 알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은 그들이 "동쪽에서" 왔다고 말합니다.
베들레헴과 예루살렘 동쪽에 사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오늘날의 이라크나 이란에서 온 페르시아인이나 바빌로니아인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아랍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아랍인들이 헤롯 왕국의 바로 동쪽에 살았습니다.
아니면 동방박사들이 위구르인, 아프가니스탄인, 파키스탄인의 조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중국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 교사들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한 가지에 동의합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별 하나로 인도하십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성경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그랬다면 헤롯과 이야기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창조를 통해 이것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가 만든 별.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비슷한 방식으로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우리가 콜로라도 서쪽으로 가는 별을 따라가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동방박사들을 인도하신 방법은 특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은 밤하늘의 은하수입니다.

도시의 불빛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여행하면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그림에 있는 모든 별을 만드셨습니다.

당신이 셀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이 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우리 태양보다 큼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볼 때 우리는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이 당신의 머리털을 세신 하나님과 동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내가 ” 하나님은 네 머리털까지 세신다” 고 말할 때, 그것은 누가복음 12:7 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가장 분명하게 아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헤롯의 종교 지도자들이 마태복음 2장 4 절에서 ” 그리스도께서 나실 곳이 어디였습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은 별을 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계시를 보았습니다.

당시 그들이 가진 것은 구약성경뿐이었습니다.

그들이 ” 그리스도” 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흥미롭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 했습니까?

우리는 이 단어를 주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압니다.

거의 그의 이름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실제로 의미하는 것은 ” 메시아” 입니다.

”그리스도” 는 ” 메시아” 처럼 들리는 히브리어 단어의 헬라어 형태였습니다.

다음은 일부 직접 번역 목록입니다.

”메시아” 를 정의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선택된 사람입니다.

실제로는 그보다 더 복잡합니다.

이 단어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은 평생을 바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두 가지에 중점을 둘 것입니다.

(1)첫째는 메시아가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할 왕이었다는 사상이다.

마태(이 책의 저자)는 자기보다 700 년 앞서, 우리보다 거의 1700 년 앞서 쓴 선지자를 인용합니다.

이 선지자의 이름은 미가입니다.

그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6 절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에 이 구절을 본 것을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2:6.

“그러나 유다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 통치자 중에 결코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한 통치자가 나올 것임이니라.”

통치자는 왕을 말하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메시아는 왕이어야 하지만 특별한 종류의 왕이어야 합니다.

이 왕은 목자처럼 통치할 것입니다.

역사에서 이것은 일반적으로 왕에 대해 이야기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일부 문화권에서는 왕이 먼저 위대한 개인 전사가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왕이 되고자 하는 다른 사람을 이길 수 있을 만큼 강해야 합니다.

일부 문화권에서는 왕이 먼저 위대한 현자나 학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

일부 문화권에서는 왕이 먼저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식으로 그는 크고 강력한 건물을 짓고 가장 큰 군대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

일부 문화권에서는 왕이 먼저 군대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대를 승리로 이끌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물론 이것은 왕에게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메시아 왕이 양치기라는 것에 대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이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지도자가 매우 궁핍하고 똑똑하지 않은 생물을 돌보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양을 돌보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모든 목자에게 그것에 대해 물어보십시오!

그러므로 메시아 왕은 강하고 강한 자의 지도자가 아니라 약하고 어리석은 자의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은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요한복음 10 장 11 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2)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메시아라는 단어가 예배와 관련된 것입니다.

헤롯과 동방박사들은 메시아에 대한 ‘예배’를 언급한다.

이 아이디어는 어디에서 왔습니까?

이것을 찾을 수 있는 곳이 많이 있지만 오늘은 한 곳만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사야서 9:6-7 에서 오늘 예배의 일부로 그것을 말했습니다.

그들은 미가보다 약 50 년 전에 기록된 다른 예언자에게서 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사야였습니다.

이사야서는 이사야서 9 장 6-7 절에서 메시아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6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7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다윗의 왕좌와 그 나라 위에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공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이사야서에 약속된 메시아는 단순한 인간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 전능하신 하나님 ” 이셨습니다.

그는 ” 영원하신 아버지 ” 였습니다.

그는 ” 평화의 왕 ” 이었습니다.

그의 정부는 끝이 없을 것입니다.

그는 영원히 통치할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모습을 한 신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여러 번, 여러 가지로 주장하신 바입니다.

이제 박사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어떻게 보았는지 알 수 있습니까?

첫째, 하늘의 별을 통해 창조되었습니다.

둘째, 그들은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메시아 예수께서 나실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3: 동방박사들은 무엇을 하였습니까?

이 질문에는 세 가지 답이 있습니다.

답: 박사들은 예수님을 열심히 찾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디에서 왔는지에 관계없이 사막 여행이 관련되었습니다.

사막 여행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이 사람들은 여행이 얼마나 오래 걸릴지조차 몰랐습니다!

B: 박사들은 그들의 시간과 보물을 예수님께 바쳤습니다.

그들은 시간을 희생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징조를 받기 위해 밤하늘을 얼마나 오랫동안 바라보았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또한 그들이 얼마나 오래 여행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작은 일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그들의 보물을 희생했습니다.

11 절에서 그들이 예수님께 무엇을 드렸는지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1.

“보물을 열어 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

우리는 금이 무엇에 사용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동전, 보석, 심지어 일부 전자 제품.

그러나 다른 두 가지는 우리에게 그렇게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유향을 태우면 진하고 좋은 냄새가 난다.

그것은 성전에서 송배에 사용되었으며 매우 귀중했습니다.

몰약도 귀하고 향이 강했습니다.

몰약은 향수, 기름으로 사용되었으며 부자들은 매장할 때 몸에 바르곤 했습니다.

이제 이 세 가지 선물이 어떻게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상징할 수 있는지 논의하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이 이것에 대해 공부하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오늘날 우리는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선물이 매우 비싸고 가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동방박사들은 예수님께 조금만 드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에게 매우 귀중한 것들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박사들은 시간과 재물을 희생적으로 바쳤지만 세 번째 일을 했습니다.

C: 현자들은 예배에 마음을 바쳤습니다.

10 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0.

”그들(현자들)이 별을 보고 크게 기뻐하여 크게 기뻐하더라.”

이 문구는 조금 이상합니다. 영어에서는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상하기 때문에 요점은 더욱 분명해집니다.

이 사람들은 이것을 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들의 일은 그들의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은 예배에 넘쳤습니다.

그들은 눈으로 어린 소년을 보았지만 마음으로 메시아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대답은 이 구절을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훌륭한 틀을 제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큰 아이디어입니다.

예수님은 약속된 메시아이십니다.

그분은 인간의 모습을 한 ‘전능하신 하나님’ 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한 목자로 인도하시는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헤롯이 그랬던 것처럼) 이기적이라는 유혹을 물리쳐야 합니다.

그 대신 우리는 현자들처럼 세 가지 일을 하는 데서 오는 기쁨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답: 첫째, 우리는 창조와 계시에서 예수님을 부지런히 찾을 때 기쁨을 찾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진정으로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힘, 아름다움, 섬세함, 유머.

그러나 그보다 더 시간을 내어 하나님의 계시를 알아가십시오.

우리는 새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습관을 시작하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알기 위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이를 수행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며 아이디어가 없으면 형이나 자매에게 제안을

요청하십시오.

B: 둘째, 우리는 우리의 시간과 보물을 예수님께 드릴 때 기쁨을 찾습니다.

이 새해에는 시간을 내어 하나님께 기도하고 당신이 시간과 보물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분석하는 데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어쩌면 당신은 어떤 것에 더 많은 것을 줄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어떤 것에 덜 줄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어떤 일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일에 시간을 덜 투자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당신과 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들은 매우 중요합니다!

C: 셋째, 우리는 예수님을 경배하면서 기쁨을 찾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하는 모든 구하고 베푸는 것의 기초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더 많이 드릴수록 그분의 기쁨이 당신의 마음을 통해 당신 주위의 모든 것과 모든 사람에게 부어지는 것을 더 많이 느낄 것입니다.

이것은 무서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때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인지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예수님을 피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길 잃은 양과 같이 저와 여러분을 돌보시는 지도자 메시아이십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은 큰 기쁨으로 크게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삶의 상황에 상관없이.

기도하십시오.

주 하느님, 당신께서 만드신 것들과 당신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이 당신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의 마음이 당신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당신의 선한 명령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희를 사랑해주시고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